

충효자 홍달한전(성산읍 고성리)

○ 조선왕조실록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억증(韓億增)의 계문(啓聞)·가자(加資)(영조(英祖) 22년 병인(丙寅, 1746) 7월 28일조)

“제주 사람 홍달한(洪達漢)을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홍달한은 효행이 있고 또 경자(庚子, 1720)년과 갑진(甲辰, 1724)년의 (숙종·경종) 국상(國喪)에 똑같이 방상(方喪 ; 자식이 부모의 상에 3년 동안 복을 입는 것에 비교하여 임금을 섬기는 신하가 임금의 죽음에 3년 동안 복을 입는 것을 말함)의 복제를 행하며 삭망마다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 배례를 하였는데, 목사(牧使) 한억증(韓億增)이 이를 계문하므로 이 명이 내려진 것이었다.”

【원문(原文)】

- 命濟州人洪達漢加資 : 達漢有孝行且於庚子甲辰國喪俱行方喪之制每朔望必登高而拜牧使韓億增以聞有是命

- 어사(御史) 심성희(沈聖希)의 장계 포상(영조(英祖) 9년 계축(癸丑, 1733) 7월 14일조)

“정의현(旌義縣) 사람 홍달한(洪達漢)을 포상(褒賞)하였다. 홍달한은 효성으로 어미를 섬겼다. 어미가 종기를 앓자 입으로 빨아내고, 병이 심하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먹였으며> 똥을 맛보았다. 국상(國喪)을 만나면 문뜩 술과 고기를 철폐(撤廢)하고 초하루 보름과 상제(祥祭)나 담제(禫祭)에는 북쪽을 바로보고 울부짖었으므로 어사(御史) 심성희(沈聖希)가 그의 충효를 장계하여 포상하였다.”

○ 전설유형

- 남양홍씨 윤강(允康)공의 11세손으로 성산읍 고성리에서 태어남,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람.
- 무적에 소속되어 벼슬을 했으나 어머니가 늙고 집안이 가난하였으므로 벼슬을 사직하고 어머니를 모심
- 어머니가 병이 나자 아침 저녁으로 꿀을 타서 드리고, 병환이 위독하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약에 타서 드렸으며, 변을 맛보아 병세의 차도를 알기도 함
- 어머니가 천수를 다하자 정성으로 초상을 치르고, 소수산봉에 산담을 혼자 쌓았고, 초막을 짓고 베옷을 입고 아침저녁으로 호곡하고 묘를 지켰으며, 3년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제수를 손수 마련함
- 제수는 곧은 뉘시를 사용하여 뉘은 물고기만을 쓰고 다시 바다로 내보냈는데, 용왕님도 공의 효심에 탄복하여 곧은 뉘시로 물고기를 잡히도록 했다함
-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므로 상복을 입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초상과 똑같이 추복(追服)하였는데, 70이 넘는 나이에 건강을 지탱하여 행할 수가 있었음
- 충성심도 강하여 숙종이 돌아가시자 '드랑쉬오름'에 올라가서 북향하여 통곡하며 추모하였는데 성은에 대한 추모가 강하여 밤을 지새며 통곡하자 어사가 찾아와 만남
- 기르던 말을 팔았는데, 배에 싣고 육지로 가다가 난파당하자, 안타깝게 여겨서 말 값을 돌리려고 하니 받을 사람이 없어 나무를 사 들에 내놓아 불태웠다고 함

○ 정실(鄭寀)의 <효자 홍달한(孝子洪達漢)>

- 홍달한(洪達漢)은 정의 사람이다. 현(縣)의 동쪽 고성촌(古城村)에 살았는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셔 어렵게 살았다. 성품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웠으며, 털끝만치도 샅됨이나 거짓이 없었다. 일찍이 무적(武籍)에 소속되어 가솔(假率)이 되었는데 가솔이란 곧 현관(縣官)의 군교(軍校)였다.

얼마 후에 어머니가 늙으시고 집이 가난하여 마침내 그 직책을 사직하고 돌아와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어머니 봉양하기를 지극히 하였다. 몸에는 언제나 누더기 옷이요, 밥을 배부르게 먹어본 날이 없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는데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다.

어머니가 일찍이 병환이 나서서 수년 동안 자리에 누워 계셨는데, 아침저녁으로 잡수시는 죽과 마실 것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꿀을 타서 드렸다. 그러나 꿀은 이 고장의 산물이 아니므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다. 생각하다 못해 이 분은 이웃 동네에 가서 사탕수수를 구해다가 그 수수대를 잘라서 그 단물을 짜내어 미음에다 섞어서 맛나게 하였다. 그래도 병환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짜내어 약에 타서 마시게 하였고 또 변을 맛보아서 병세의 차도를 알아내기까지 하였다.

한편 경자(庚子, 1720)년 6월에 숙종(肅宗) 임금이 승하하여 국상을 당하자, 이 분은 바빠 돌아다니며 호곡하였고, 마침내는 상복을 지어 입고 마치 부모를 여윈 사람처럼 몸이 수척해지도록 절제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랑쉬'라는 오름이 있는데, 산이 높아 멀리 조망해볼 수가 있다. 달마다 초하루와 보름이면 꼭 이 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며 향을 피우고 슬피 울었다.

대상과 담제 때에는 부모를 여윈 때와 같이 비통하게 그 산정에서 밤새껏 통곡을 하니 이웃 사람들이 감동하였다. 계축(癸丑, 1733)년에 어사 심성희(沈聖希)가 이런 말을 전해 듣고서 몸소 찾아와 만났다.

그 뒤에 모친이 죽으니 이 분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으며 모든 수의나 관에 넣는 물건 등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공경스럽게 온 마음을 다 바쳐 마련하였다. 산소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시묘살이[守墓]를 3년을 마쳐도 귀가하지 않은 채 베옷을 입고 고기도 일체 먹지 않았다.

이 섬의 풍속은 반드시 산소를 만들고 돌로 산담을 쌓아서 대개 우마를 막곤 한다. 이 분은 몸소 돌을 주워 모아 산담을 쌓았다. 또 그 산담 밖에다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손수 심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면 산담의 네 모서리가 반듯하여 마치 나무를 깎아 놓은 것 같았고, 또한 덩굴이 우거져 또렷이 행렬을 짓고 있었다. 모두 이르기를 ‘홍효자 집안 묘’라고 하였다.

하루는 산불이 나서 불이 산소 안에까지 들어와 초목이 타죽고 그루터기만 남았다. 이 분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다. 주위 사람들이 이를 쓸어서 없애버리려 하자 이 분은 이를 말리면서 말하기를,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것이나 살아계신 분을 모시는 것이나 매한가지인데, 어찌 이 일을 남에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빗자루로 재를 일으키며 쓸어내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입을 옷에 재를 쓸어 담아서 담 밖으로 털어내기를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하였는데 며칠 걸려 깨끗이 치웠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서 복을 입지 못한 것을 매우 괴로워하며 말하기를, “남들은 모두 아버지의 복을 입었는데, 아! 나만 그러질 못하였구나.”라고 하였다. 모친상을 마치게 되자 드디어 다시 상복을 만들어 입고 초상 때와 똑같이 거처하면서 식생활도 절제하였다. 이때는 나이

가 이미 칠십을 넘은지라 보는 사람마다 이를 위태롭게 여겼으나 끝내 듣지 않고 24개월의 복을 다 마쳤다. 그러고서도 능히 몸을 지탱할 수 있었음은 사람이 신을 위함으로 도움 받을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분은 모친상을 당한 이후 지금까지 시종 10여년을 여막(廬幕)을 짓고서 산소를 지키면서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기를 하루같이 하였다.

그의 아들 재중(載重)이 말하기를, “늙으신 아버님께서 이와 같으시니 제가 어찌 차마 돼지고기를 먹겠습니까? 고기를 딱 끊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나는 얼마 없어 늙어 죽어서 지하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일로 인하여 네가 병이 나면 해마다 제사는 누가 모실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비로소 고기를 잡수시고 아들에게도 먹으라고 권하였다.

이 분은 만년에 책을 즐겨 읽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르신께서는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책은 읽어 무엇하시겠습니까?”라고 하자, 이 분께서 대답하기를, “70 늙은이가 무엇을 구하겠는가? 다만 사람이 사람 된 까닭이 여기에 있으니 하는 것이라네.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책을 통하여 터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할 따름이지.”라고 하였다.

날마다 공부하는 시골사람들에게 강론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혹시 밤중에라도 글귀의 뜻을 깊이 생각하다가 새로 터득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서 학동들을 불러 놓고 말하기를, “지난번 내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고선 그가 아는 바를 다하여 가르쳤다.

또 음양가(陰陽家)의 책을 읽어서 사람들의 길흉을 가리어 택일 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간 다음 혹시 생각이 달라지거나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을 땐 그 사람을 쫓아가서 꼭 불러다

가 재차 택일을 취하게 하곤 하였다.

또 그 추복(追服) 때에 현감 홍언섭(洪彦燮)은, 얼마 없어 상복을 벗게 된다는 말을 듣고서는 약간의 제물을 보내어 제를 도운 일이 있었다. 이 분은 이에 감격하여 즉시 찾아가서 고마운 인사를 하였는데, 황망히 뜰아래 엎드려 절을 하자 언섭이 급히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고 재배를 하고선 비로소 마루에 올라가서 고마운 말을 하였다.

이 분은 소식(素食)할 정도로 가난하였다. 말이 10여 마리가 있어서 들에다 방목하였는데, 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도 이 분이 동산에 올라가서 확연히 한 마디 소리를 지르면 모든 말들이 일제히 머리로 그 소리에 응답하고 멈추어 서곤 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 분은 이미 지극히 착하신 행동을 하셨고, 또 겸하여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화를 남기셨기에 전도민이 이구동성으로 “이 분은 홍효자(洪孝子)이다.”라고 일컬으니, 이는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어사(御史)가 조정에 돌아가서 사퇴되 그 집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오천(烏川)이란 사람의 말이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내시니 만물이 있으면 도리가 있는 즉, 백성의 타고난 성품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하거니와, 만물의 도리 가운데 충과 효가 큰일인데,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본분을 다한 사람이 드물다.’라고 했는데 오직 이 분만은 그를 행하였으니, 가히 그 타고난 착한 천유(天惟)를 홀로 온전히 드러내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건대, 왕조에서 벼슬을 하는 일이 이 분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라 여기나, 이런 정도로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예절을 꼭 차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 분은 절해 가운데 있는 섬에서 임금의 상을

당함에 복을 입었습니다. 이 분이야말로 우리 성상이 백성의 살피심을 알고 존경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을 추복(追服)하는 일이 예종의 예에도 없는 일이나, 이 분은 이를 행하였으니 진실로 순수한 효성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는 또한 가히 아침에 죽은 사람을 저녁에 잊어버리곤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백성의 풍물을 살피는 사람이 백성이 임금에게 올리는 말을 듣고 이를 표창한 일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바 그 효험을 알게 함인즉, 어찌 다만 이 탐라(耽羅)란 한 지역의 풍동감화(風動感化) 됨에 그치겠습니까? 장차 온 나라 수 천리 땅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과 신하, 그리고 아비 아들 사이의 윤리를 알게 하는 일이 될 것이오니, 이 어찌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원문(原文)】

洪達漢旌義人也。居於縣東之古城村，幼喪父奉母窮居。性忠孝誠懿無一毫私偽，嘗屬名於武籍爲假率，假率卽縣官之軍校也。

未幾因親老家貧，遂辭而去，勞筋苦骨奉養甚至。體無完衣食 不充腹而親之甘旨無缺也。

其母嘗病屢歲沈綿，朝夕粥飲不和以蜜則不御，而非此土所產故無以繼用，君遂遍求玉林於隣里伐具幹而瀝其液調於米飲以助滋味。

及病篤嚙指出血和藥用之。又嘗糞以驗差劇焉。

歲庚子夏值肅廟大喪，君奔走號哭遂制衰以服之居瘠以節如喪父母。其家數喚地有山曰大朗岵勢最高可以望遠，每月朔反望 必登此山北望焚香而痛哭乃至。

祥禫之時悲痛如親，遂徹夜露處于山頂哀號之聲感動隣人。癸丑御史沈聖希聞之遂躬詣請見之

其後母以天年終君哭擗叫叩而不得逮焉則自初終至窆窆，几附身附棺之物必

誠必敬克盡其心仍守墓以居三年畢猶不歸家衣鹿布不食肉焉。

島俗必就其塋域城而築石墻盖防牛馬之隳突也。君躬自鳩石而築之又於墻內手植松累百株。道路行者望之則墻面方正如削松亦葱鬱儼然成行。皆曰此洪孝子墓云。

一日野火發延及於塋內草樹多焦成燼。君痛甚傍人欲爲之掃。攘則君止之曰事亡事存一也豈可使人爲之。且吾不忍見具蓆以掃之以起灰燼。遂以所着衣受灰而出振之于墻外終日不少休如是者數日乃止。

嘗以早失怙¹⁾而未克受衰爲至痛曰人皆服父之喪緊我獨無。及其終母之喪也遂追制衰服而服之居處飲食一如喪初時年已過七耄見者危而止之終不聽以盡二十四月之制而能得支保人以爲神明所扶云君自遭內艱以至于今首尾十餘年廬幕行蔬如一日。

其子載重曰老父如此吾何忍食豬遂絕口不近肉君曰吾則老矣死而得見父母於地下足矣又汝因此而生病則春秋香火誰其戶之遂歸于家始進肉亦勸其子食之。君晚喜讀書。人曰君今耄矣。讀書何爲君曰七十老翁更何求乎但人之所以爲人者在於是矣。

日輿村究輩講論不怠。或於夜中潛心精思於章句文義之間有新得則必起坐呼學者語曰吾之前見非矣。遂竭其所知而教之。

且略涉陰陽家流。凡人吉凶請涓日則必應副焉。其人已去如或更思而有誤則疾走人追之必邀來而更告焉。

方其追服也。縣監洪彥燮聞其將釋衰送略于物以助祭。君感之卽來謝而遽釋於庭下。彥燮丞止而不聽再拜。訖始陞堂謝之。

君素食貧。惟有馬十餘頭。放之于野。奔逸散在於草木之場。君登小丘作劃然一聲則象焉齋頭應聲而止。人背異之。

1) 早失怙(조실호) :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다. 여기서 '怙(호)'자는 아버지를 뜻하는 말인데, 이의 상대어는 '恃(시)'자로서 어미를 뜻한다.

君既有至行又兼此衆美而一島人士皆稱之曰洪孝者豈孝是百行之源故耶.

御史還白于 朝 命復其家云, 烏川子曰詩云天生蒸民有物有則民之秉彝好是懿德, 物則之中忠孝爲大而古迄今鮮有盡其分者惟君所行可謂獨全其秉彝之天矣. 余觀夫仕於王朝食君者於送往之節未必能盡合於禮而君則生在絕海之中克盡方喪之制, 噫君誠我聖告民也.

至於追服襄麻雖是無於禮之禮而非至誠純孝何以及此, 亦可以敬世之朝死而夕忘者矣.

觀民風者其能登聞而表章之使斯民知所慕效則奚但毛羅一域之風動而已, 將使環東土數千里之地皆知君臣父子之倫矣豈不盛哉.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윤(金潤)의<홍효자달한행적(洪孝子達漢行迹)>

- 내가 이 섬을 관장한 후에 처음으로 듣기를, 정의현에 효자 홍달한(洪達漢)이란 분이 있어 이 섬의 높은 이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칭찬하고 감탄하며, 비록 부인이나 어린 아이 들도 그 이름자를 들먹이면 ‘그 분 홍효자(洪孝子)’라고 하였다.

대저 하늘에 빼어난 충효(忠孝)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므로 앞뒤의 어사(御史)가 세 차례에 걸쳐 포상(褒賞)했으나, 그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아울러 그 분의 연세가 이미 팔십(八十)이라 이제 얼마 없어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그 방정한 품행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여기에 그 충군효친(忠君孝親)의 사적(事迹)을 적는다.

효자(孝子)는 어려서 그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만 모시고 봉양하였는데, 옷을 입는 일이나 음식을 드리는 일을 남을 시키지 않고 몸소 하였으며 언제나 그 어머니 뜻에 꼭 들어맞게 하였다.

그 모친이 일찍이 악성 종기가 났는데, 바늘로 찌는 것을 못 참으시므로 입으로 그 종기를 빠니 저절로 나았다. 또 (그 모친이) 증병을 앓으시자 손가락을 베고 피를 내어 약물에 타서 드렸으며, 변을 맛보아 병세가 더하고 덜함을 시험했다.

연세 70에 모친상을 당하며, 얼굴이 초췌해지도록 지나친 절제생활을 하였고, 제례(祭禮)를 더욱 독실하게 하였다. 산소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호곡(號哭)하니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제전(祭奠)은 자식에게 맡기는 일이 없이 반드시 몸소 준비하였다. 묘담을 쌓을 돌도 몸소 등에 지어다가 쌓았는데 힘써 노력하여 견고하며 단정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모친상을 마치자, 그 부친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복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삼년상을 추행(追行)하였다. 상복을 입고 방장대를 짊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 고인을 추모함이 초상을 당한 때와 똑같았다.

경자(庚子, 1720) · 갑진(甲辰, 1724)에 이르러 국상(國喪)을 당했을 때는 친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비통해 하였다. 국상의 부음 소식을 듣자 즉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성복(成服)하였다. 스스로 백랍(白蠟)을 따다가 초를 수십 쌍이나 만들었다. 경자년 국상을 당하며 이것을 혼전(魂殿)에 진상(進上)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수가 없자, 초하루 보름 명절날 그리고 장례(葬禮)를 지낸 날에는 반드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그 초를 사르면서 통곡하였다.

그리고 평일에도 사람들과 말하다가 이야기가, 숙종(肅宗)임금 때의 일(곧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구휼해준 일)에 미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의 성덕(聖德)을 생각하건대, 이 제주도민치고 그 임금님의 보살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객사(客舍)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전패(殿牌, 곧 지방 객사에 전자(殿字)를 세겨 세운 나무패, 군주의 상징으로 출장 간 관리나 그 고을 원이 배례하였다 함)를 모시고 있는 곳이라 반드시 사배(四拜)를 한 뒤에야 분주히 지나갔다.

임금을 위하는 충성과 부모를 위하는 효성은 대략 이러하였고, 그 밖의 일에 있어서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집에서 말을 수십 필 길렀는데, 누가 말을 사려 하면 반드시 동네 사람을 시켜, 그 살 사람과 공정히 값을 정하게 하였다. 값이 만일 당신 생각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은 받지 않았다. 매매가 이뤄진 뒤에라도 말이 죽거나 하면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반드시 그 말 값을 돌려주었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그 집의 말을 사서 육지로 가다가 배가 파선되어 침몰해 버렸다. 효자는 사람과 그 배가 다 같이 빠져 죽었으니 그 값을 돌려 줄 곳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그 돈을 써버릴 수도 없어 마침내는 그 값어치의 나무를 들에다 쌓아놓고 불을 태웠다. 이런 일은 범상한 세속 사람이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아, 참으로 위대하구나!

대저 그 평생은 뜻이 소박하여 오직 충(忠)과 효(孝)만을 생각했다. 비록 연로하고 집이 가난하여 향임(鄉任)이나 관직(官職)도 취한 적이 없으나, 나는 벼슬없이 늙어가는 것과 또 달리 포상할 것도 없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천념(千揔)에 승진시켰다. 그리고 그 아들 재중(載重)은 맨 먼저 성장(城將)에 임명하였다가 후에 다시 별방진장(別防鎭將)으로 특채하여 이로써 복을 받아 그 부모님을 봉양하게 하고 이로써 비록 잠시일지라도 도민(島民)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원문(原文)】

余按茲島後 始聞旌義縣有孝子洪達漢者 一島上下民人莫不稱歎而雖婦人孺子亦皆聞知其名字而洪孝子稱之.

概其出天之忠孝爲人所敬服而然也。是以前後御史三次褒 聞尙未蒙旌閭之典，年今八十已成朝暮之人矣。或恐其卓然行誼泯而不傳 茲記其忠君孝親之事迹焉。

孝子幼喪其父獨奉偏母衣食之節甘旨之供莫不親執必適其親意。

其母嘗患毒腫 不忍針刺口呪其瘡 自抵完合 又患重病割指 出血和進藥物 嘗其糞而驗其吉凶。

年至七十始遭其母喪哀毀逾節 執禮彌篤。廬于墓側晨昏號哭 行路莫不下淚矣。朝夕祭奠 不委其子女 必親自烹煮 墓傍圍墻 亦親自負石築之而務盡堅完極其端正。

及母喪闋則 其父喪 時幼未服喪追行三年之喪。疏衰菹杖哭 擗號慕如同初喪。逮夫庚子甲辰 國恤時 實有如喪考妣之痛聞 國訃之 卽上高峯望北痛哭 因於其處成服 而自採白蠟造燭數十雙欲爲庚子年 魂殿進上而 不得則每於朔望郎曰及下玄宮之 曰必登高峰燃其燭向北號泣。

而平日與人言或語及 肅廟朝時事則輒泫然下淚曰 靡吾 王聖德則顧此島民已無孑遺矣。嘗過客舍則以其奉殿牌之所 必四拜後趨來而過。

爲君之忠爲親之孝此 其大略 而其他行事又 多有出人之事者。家有畜馬數十匹而人有願買者則 必使鄉人與買者從公折 價價若於意過濫則 必不受其過價。賣買後馬若致斃則 雖久遠之後 必還給其價焉。

嘗有人買其馬出陸敗舡漂沒。孝子以爲人與馬俱沒此價旣無還給處而亦安忍用之遂焚其價木於野外 此豈常人俗流可爲者哉。吁可偉矣。

蓋其平生素志只在忠孝而已。雖年老家貧至於鄉任及官職 本不取焉。余惜其空老無他褒揚之道 擢差千掄未幾移差助防將 又未幾陞差本縣座首而 其子載重先差城將後更爲特差 別防鎮將使之以官廩養其親以爲一分激動島民之地焉。